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영진 의원이 16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과학벨트 대전 선정 결정을 백지화하고 재심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광역경제권 탈퇴하겠다”

박준영 지사 “신재생에너지 전국 나눠먹기” 정부에 또 직격탄

박준영 전남지사가 연일 정부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현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5+2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해 적격탄을 날렸다. 〈관련기사 5면〉

박 지사는 16일 오전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로 전남 선정과 관련, “호남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말이 안되는 정책을 폄하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지사는 특히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등 2개 분야를 호남권 선도사업으로 지정했는데, 전국으로 흩어지고 조개졌다”면서 “호남권 선도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준 의미가 없다”고 쓴 소리를 했다.

예컨대 동남권의 경우 해운물류·

기계항공화학·해양레저·조선분야가

선도사업인데도, 풍력부품 테스트베

드로 선정하는가 하면, 대경권에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테스트베드를 선

정하는 등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본래

취지와 정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중복투자와 과당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다.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된 경제정책을 광역권으로 확대, 중복투자와 지역간 과정경쟁을 지양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중인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 중 하나다.

그는 이어 “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종료에 따라 검토중인 신지역 산업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전남도의 전략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 분야를 포함시키는 등 보완책이 없을 경우 광역경제권에서 탈퇴하겠다”고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직원들에게도 “호남권 선도사업이 대경권, 동남권으로 다 조개져나가는데,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들어왔다고 잘했다고 하느냐. 그렇게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일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다음 세대의 멋거리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목포 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의 호남고속철도(KTX) 광주~목포 구간 기존 노선 활용 방침에 대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현 정부는 손을 뗄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민심 최악국면

단식·농성·규탄대회…과학벨트·LH 입지선정 후폭풍

강운태 시장 “치출한 짜맞추기 심사 원천무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가 대전으로 결정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경남 진주 일괄 이전이 확정된 데 대해 광주시와 전북도는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전면 백지화와 공정한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두 대형 국책사업 유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지역 정치권은 단식투쟁은 물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16일 정부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선정하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민주당 광주 시당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벨트 입지 선정 절차는 특별법의 규정을 무시한 불공

정하고 불법적 심사결과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백지화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지역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지반의 안정성과 재해 안전성 항목만 세부평가 기준 없이 단지 적격·부적격 판단을 하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싼 평동 훈련장을 심사대상에서 원천 배제한 것은 광주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호도하기 위한 치출하고 비열한 각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통해 재심사할 의지가 없다면 그 결정권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과학벨트 부지 선정과 관련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벨트 호남권유치위는 17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장 5명은 이날 오전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 선정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원점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분분열과 지역갈등을 야기한 과학벨트 정책 혼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책관련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일괄은 이전 방침과 관련해 전북도 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원주 전북도지사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 전북 도의원 등은 이날 청와대를 향의 방문한 뒤 전북도민 300여 명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탱크 부활

최경주 PGA 우승
40개월만에 정상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가 부활했다. 완도출신의 최경주는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제패했다. 〈관련기사 16면〉

최경주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 라비치의 소그래스TPC 스타디움 코스(파72·721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2티를 줄여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데이비드 톰스(미국)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2008년 1월 소니오픈을 마지막으로 PGA 투어에서 우승하지 못했던 최경주는 40개월 만에 정상을 밟았다. PGA 통산 승수를 8승으로 늘리며, 세계랭킹도 34위에서 19계단이나 상승한 15위로 경쟁 올라섰다. 우승 상금 171만 달러를 더해 시즌 상금 랭킹은 3위(291만5000달러)가 됐다.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대구·울산·포항 1조5000억원(연구단 10개 내외 등)에 비해 3분의 1~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광주시의 삼각벨트를 수용하고 사업비를 증액한 것은 성과이며 정부안에 따른 지원은 광주 과학기술원(GIST)을 그 대상으로 해 광주시가 반대할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 시장의 삼각벨트를 받아들이면서 광주의 유리한 평가기준을 정략적으로 배제, 결국 ‘들러리’만 세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이나 공약 이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타당성보다는 정치적인 선택을 우선하면서 호남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에 5개 연구단 설치 과학벨트 ‘생색내기’ 분산배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선정됐으나 강운태 광주시장이 주장한 삼각벨트가 정부 정책에 일부 반영되면서 광주에도 5개 내외의 연구단과 캠퍼스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규모가 이미 기초과학 기반을 갖춘 대덕특구는 물론 경북권에 비해 턱없이 적어 지역의 기초과학 학역량이 이를 지역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7년간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5개 안팎의 연구단이 설치되고 기초연구 지원 명목으로 4000억원, 캠퍼스 건설 및 정주여건 조성 등 연구 기반 조성 명목으로 20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전체 사업비 5조2000억원의 10%를 웃도는 수준으로 대전 대덕특구 2조3000억원(연구단 25개 내외 및

수백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7년간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5개 안팎의 연구단이 설치되고 기초연구 지원 명목으로 4000억원, 캠퍼스 건설 및 정주여건 조성 등 연구 기반 조성 명목으로 20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지원규모가 이미 기초과학 기반을 갖춘 대덕특구는 물론 경북권에 비해 턱없이 적어 지역의 기초과학 학역량이 이를 지역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7년간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5개 안팎의 연구단이 설치되고 기초연구 지원 명목으로 4000억원, 캠퍼스 건설 및 정주여건 조성 등 연구 기반 조성 명목으로 20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전체 사업비 5조2000억원의 10%를 웃도는 수준으로 대전 대덕특구 2조3000억원(연구단 25개 내외 및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학 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2012. 5. 12 ~ 8. 12

여수에서 만드는 해양강국의 꿈,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100여개국이 함께 쓰는
인류 해양사와 미래 비전..

박람회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여수시민의 열정,
이제 ‘엑스포 4대 시민운동’(청결, 질서, 친절, 봉사)으로
재점화되어 성공개최를 향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 바다를 희망이라 부르는가
2012년 5월12일,
여수세계박람회가 그 놀라운 해답을 드립니다.



살았던 바라
술술

